

사회

광주 기간제 교사 급증

올 전체 교원 10% 넘어서...대책마련 필요

광주의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해마다 늘어나 올해 전체 교원의 10%를 넘어서 16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도는 이처럼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잦은 교사교체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혼란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광주시교육청이 3일 발간한 2012 학년도 광주교육통계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 유·초·중·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모두 1605명(4월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574명)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548명, 초등학교 343명, 특수학교 100명, 유치원 40명 등이다.
이 지역 기간제 교사는 2010년 616 명에서 2011년 1349명으로 크게 늘어난 이후 2012년 1605명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광주지역 전체 교원 수(1만5765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1%를 기록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2010년에는 4.2%, 지난해에는 8.5%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맡기기 위해 교원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반면, 일반 교사 숫자는 2011년 9784명에서 2012년 9800명으로 1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부 기간제 교사의 책임감과 전문성 결여,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 혼란, 학생지도 부실 등으로 전체적인 학교교육 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설레는 광주 제9회 추억의 7080총장축제가 6일 앞으로 다가온 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 마련된 소망터널에 시민들의 기원을 담은 글귀들이 빼곡히 매달려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7080총장축제' 9일 개막

'추억&Asia' 주제 1만여명 거리 퍼레이드 등 47개 프로그램 선봬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9일 추억의 테마거리 개관식을 시작으로 광주 총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14일까지 6일 동안 열린다.

'추억&Asia'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만여명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해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전국 동호인밴드 경연대회' 등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47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표 참조>

<지역·세대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신곡과를 시대에 어울리게 재구성한 '이수일과 바람난 심순애'가 추억의 거리에서 5일 동안 하루 4차례씩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무성 영화 속 극의 진행과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관객들에게 설명해주는 기존 번사극과는 달리 중견 연기가 김현기씨가 번사로 출연해 영상이 아닌 직접 연기와 호흡을 맞춰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또 '검정과무신'이라는 만화를 70~80년대에 유행했던 춤과 함께 공연하는 거리극으로 각색해 시민참여형 공연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나라별 공연팀들도 대거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멕시코, 중국, 인도, 일본 등 나라별 공연팀이 참가해 다양한 길거리 행진과 공연을

제9회 총장축제 주요 프로그램

Table with 7 columns: 시간/일차, 10월9일, 10월10일, 10월11일, 10월12일, 10월13일, 10월14일. Rows include activities like 퍼레이드, 공연, 전시회, and 경연대회.

선사한다.

<시민참여형 축제>=거리 아티스트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거리 연주와 마임 등을 펼치는 등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아티스트 거리 문화예술축제로 운영된다. 추억의 7080 총장축제 주제에 맞게 '추억의 동창회' '봉숭아 물들이기' '추억의 사진작가' '바람개비 만들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추억의 놀이도 선보인다.

아울러 광주의 대표적 무형 문화유산인 '광주칠성고싸움놀이'가 고싸움 보존회, 초·중·고, 대학생, 외국인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펼쳐진다. <풍성한 이벤트>=축제가간 총장으로 일대 상가에서는 다양한 경품행사 와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광주극장 인근에 조성될 '추억의 거리'에서는 '보물찾기'행사가 수시

로 개최된다.

총장로상인회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46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총장로 거리 상가에서는 평소보다 20~30%까지 할인판매하는 세일 이벤트도 진행된다. 올해는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분사를 둔 유명 브랜드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효성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움과 놀라움을 만들어 나갈 이번 축제는 아시아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축제, 수준 높은 거리문화 예술 공연 축제, 교육과 흥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축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의 축제, 세대가 공감하는 체험의 축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생 1인당 지급 평균 장학금 분석해보니

전남대·조선대, 포항공대 4분의 1 수준

전남대와 조선대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이 포항공대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조선대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27만 원과 140만 원이었다. 이는 포항공대 학생 1인당 평균 538만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서남대의 경우 41만원으로 학생 1인당 장학금이 가장 적었다. 여기에 포항공대 장학금 수혜 연인원은 재학생 1302명의 3배인 3590명

으로 중복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의 경우 재학생 1만 9995명 중 2500여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장학금 제도는 높은 성적 기준과 학교별로 다른 장학 사정 기준, 소득평가 기준의 허점 등으로 학생들간 불신이 팽배하다"며 "각종 의혹과 갈등이 만연하고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 등록금 부담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어린이 성폭력 예방

CCTV 3980곳 설치

정부가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 내년에 공원,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 3980곳에 CCTV를 확대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170억원(38%) 많은 615억원을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방범용·어린이보호용·재난감시용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CCTV 4만 3000여대를 통합 연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 과속방지턱과 중앙분리대,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280억원,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복합 재난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방재기술 연구개발 등에 14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연환뉴스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a 10-day weather outlook table.

광주경찰 '강절도·성폭력 소탕 100일 단속' 범죄 발생률 대폭 줄고 용의자 검거 크게 늘어 (Gwangju Police Crackdown on Crime Results) section with detailed statistics on crime reduction and suspect apprehensions.

Large advertisement for '세기보청기' (Segi Hearing Aid)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the Sydney Opera Hou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gistar.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etc.), contact numbers, and addresses for Segistar branches.